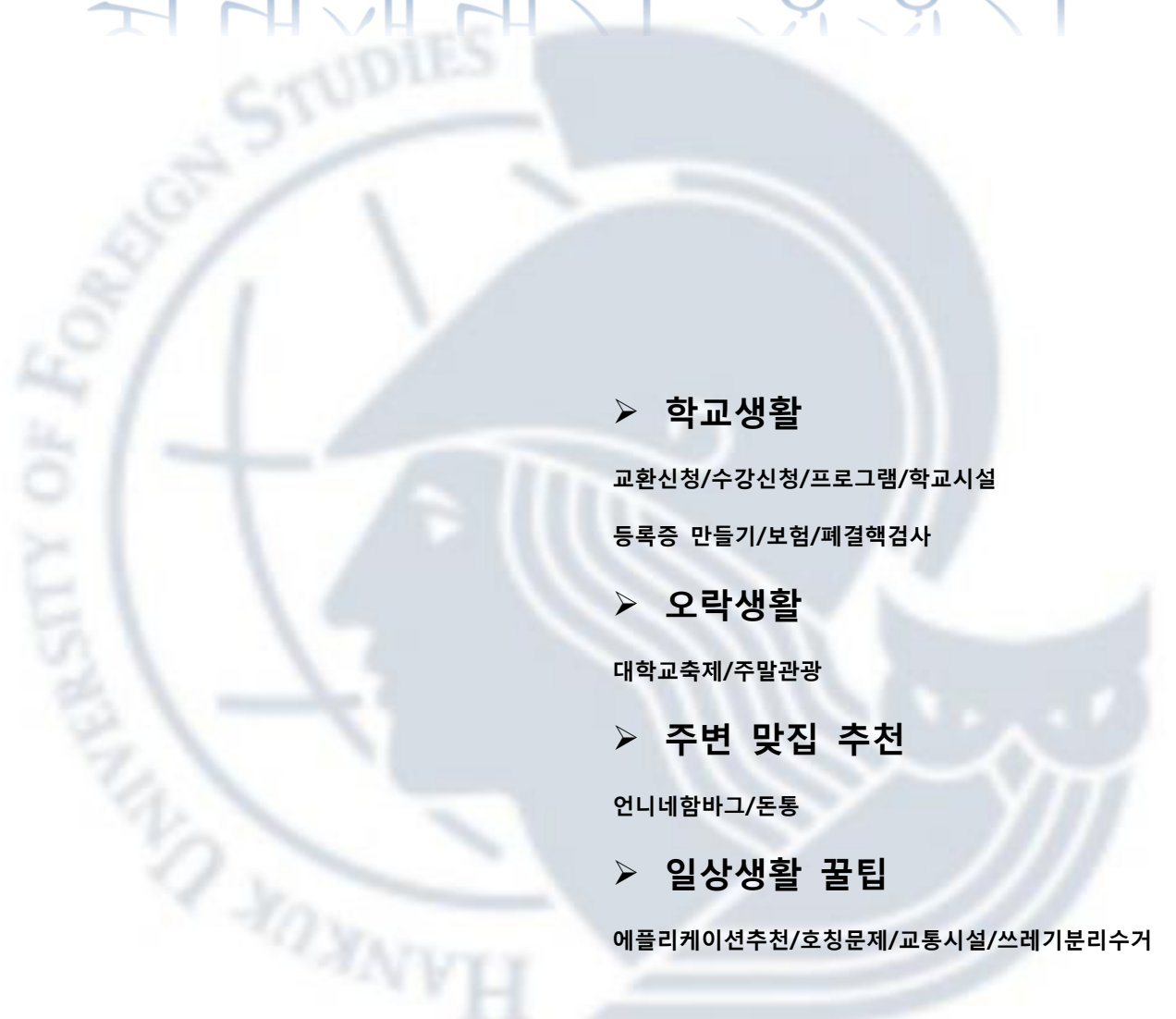


Hufs



wonderful exchange life

외대재내기 성장기



➤ 학교생활

교환신청/수강신청/프로그램/학교시설

등록증 만들기/보험/폐결핵검사

➤ 오락생활

대학교축제/주말관광

➤ 주변 맛집 추천

언니네햄바그/돈통

➤ 일상생활 꿀팁

애플리케이션추천/호칭문제/교통시설/쓰레기분리수거



아포방포출판사

2019년 10월 31일

제 1 회



9 771003 826003



02 >

편집자의 말

'어서 와~교환은 처음이지~^ ^'

한국에 처음 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급 수업이 반이 지나고 졸업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그동안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여기 저기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여한 없이 바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졸업작품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제 개인 경험으로 제작하는 특별한 졸업선물을 만들고 싶어요. 얼마 전 중국대학교 후배들이 갑자기 외대 교환과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한국과 외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었고 제 선배들의 진지한 도움이야말로 지금 이렇게 원만한 교환생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선배로서 후배에게 유학 생활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데 이 잡지가 유학생활을 막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또한 이 잡지를 통해 작년 이맘때 저를 도와준 선배님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이 '선배애'도 계속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학 기회를 얻은 여러분 , 이제 제 잡지를 펼쳐서 제 세계로 들어오시죠!~

목차

학교생활..... 1

교환신청.....	1
수강신청.....	2
프로그램.....	3
학교시설.....	3
등록증만들기/보험/폐결핵검사.....	4

오락생활..... 5

대학교축제.....	5
주말관광.....	5

주변 맛집 추천..... 8

언니네햄바그.....	8
돈통.....	9

일상생활 꿀팁..... 10

애플리케이션 추천.....	10
호칭문제.....	11
교통시설.....	12
쓰레기분리수거.....	12

학교생활



교환신청

1. (10.10 썸)우리 학교의 선발 시험을 통과한 후, 개인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은 후 <http://international.hufs.ac.kr/>에 들어가서 온라인신청을 한다.
2. (10.15~10.30) 가 이 드 라 인
([http://builder.hufs.ac.kr/user/international2/download/Guideline_HUFS_OAS_Students\(Exchange\).pdf](http://builder.hufs.ac.kr/user/international2/download/Guideline_HUFS_OAS_Students(Exchange).pdf))을 참고해서 신청서를 완성한다.
 - ◆ **영어 수준 증명서**: 영어로 하는 수업만 듣는 학생들은 자기의 영어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영어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한국어 실력만 증명하면 된다. TOPIK 시험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본인 학교 한국어학과 담임 선생님께 한국어 능력 증명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 ◆ **어학당&학부수업**: 신청서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다. 어학당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어 수준 시험과 인터뷰를 통해 실력에 맞는 급에 배정된다. 우리 학교의 2학년 교환학생들은 보통 4급부터 3 학기를 들으면 졸업할 수 있다. 학부의 수강신청은 2 월 초가 되면 메일을 통해 공지된다. 인터넷에서 2 라운드가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도 선택 기회가 2 번 있다. 또한 , 교환학생을 위한 특별정책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수업이 만원이라도 담임 교수에게 허가를 받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주의: 영어수업과 체육수업도 들어야 한다.)
3. 신청서의 내용을 외대 교환센터가 확인한 후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

로 보내며, 서류를 가지고 출국 관련 수속을 만들고 나면 한국에 오는 날을 기다릴 수 있다.

수강신청



http://vsugang4.hufs.ac.kr:8080/sugang/jsp/s_login_go.jsp#

수강신청은 두 라운드가 있으며 첫 수업을 듣고 규정된 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수업을 미리 장바구니에 넣으면 더욱 빠르다. 외국 학생들에게 전문성이 너무 강하거나 내용이 너무 어려운 수업은 한국어를 배우러 온 교환학생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추천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수업 중, <언어와 광고>, <한국 근현대사> 이 두 과목은 나이가 많으신 남자 교수인데 말이 빠르고 잘 알아들을 수 없다, 게다가 어휘가 어렵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전문성이 강한 전공수업보다 단순히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양수업을 추천한다.

◆ 추천 수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2, 대중문화와 한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학의 이해, 한국문화, 한국어사,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 다른 외국어:

한국어외에도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일주일 동안 2 시간 밖에 안 되지만, 취미 삼아 공부할 만하다.

프로그램

ISO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GAT 프로그램(가입비 5천원)

같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국인학생 한 명과 한국인학생 한 명이 한 팀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같이 공부한다.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 BUDDY 프로그램(가입비 4만원)

한국 문화를 더 깊게 느끼고 생활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각 나라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주말마다 함께 서울 여행지를 둘러보고 대표적인 음식을 먹는다.



학교시설

◆ 국제학사(4):

지하 1층: 무료 헬스장 7:3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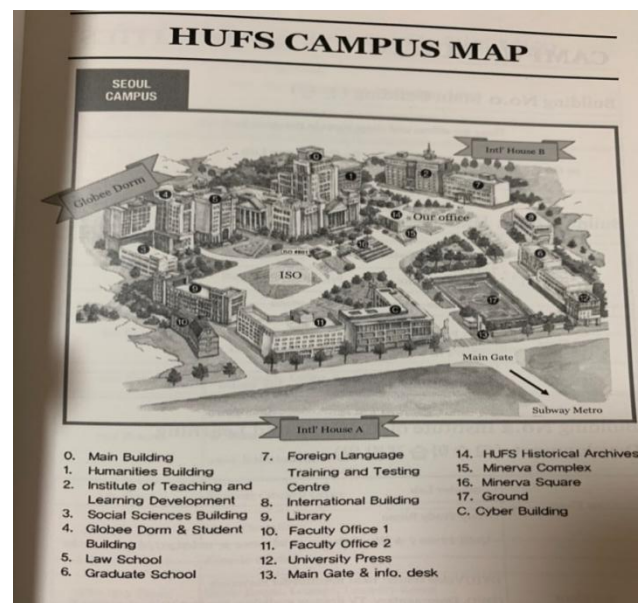
2층: 보건실 9:00-17:00

5-12층: 휴게실, 자습실, 빨래방

통급시간: 평일 밤 12:00

(주말 제외, 시험 기간 제외)

◆ 음식



인문과학관(1): 학생식당 1500-3000 원 쯤

교수회관(11): 5000 원 쯤

등록증 만들기/보험/폐결핵검사

◆ 등록증 만들기

첫날에 기숙사에 체크인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메일을 받은 뒤 지시한 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에 가서 지문인식을 하면 된다. 약 1 달이 지난 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 보험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건강보험이 꼭 있어야 한다. 자기 나라에 보험이 없다면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대 학생보험은 한 학기에 약 6 만 원 정도이다.

◆ 폐결핵검사

1 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려면 자기와 타인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폐결핵 검사 결과를 두 번 제출해야 한다(3 월, 9 월). 외대에서 가장 가까운 폐결핵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동대문구 보건소이다. (비용:3000 KRW)

오락생활

대학교축제

한국 대학교들이 1 년 중에 학생들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두 번째로 큰 대형 행사가

있는데 바로 축제이다. 보통 봄 축제가 가을축제보다 규모가 크다. 대학교축제의 특징이라면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재미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벤트가 많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축제 때 여러 가지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미션을 성공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대부분 축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려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공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말관광

한국생활이라면 역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낭만적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다. 이왕 한국에 왔으니까 드라마에서 주말의 일상을 한 번 느껴보고 싶을 것이다. 보통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친구들과 공원에 가서 산책하기, 상가에 가서 쇼핑하기, 맛집 찾기, 공연 보기, 노래방에서 노래하기, 술 마시기 이런 재미있는 활동으로 즐거운 주말을 보낸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라 아니어도 주말 휴식

장소로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

◆ 여의도한강공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의도한강공원에 가서,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소풍을 하며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던 한강 다리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장면도 친구들과 같이 풀밭에 앉아서 치킨과 라면을 먹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행복하다!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도깨비 야시장도 있고 10월 초에는 화려한 불꽃축제도 볼 수 있고 음악제도 꼭 차 있다! 깜짝 버스킹도 근처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어버린다! 여기는 확실히 일 년 내내 올 만한 휴식 장소로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의도한강공원은 추천 1 순위다!

◆ 하늘공원

역사축제로 유명한 하늘공원~!

등산한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확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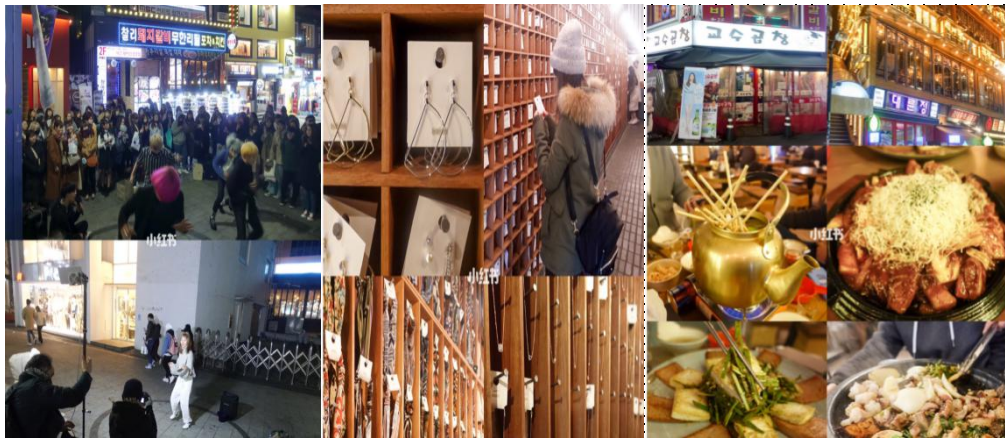
◆ 서울숲

친구들끼리 소풍하러 가면 정말 좋은 곳~! 공기가 맑고 신선해서 숲 속을 산책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가을이라면 단풍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 홍대

홍대는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온 이후 거의 매주 홍대에 놀러 가지만 재미있는 가게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지금까지도 구경하지 못한 곳이 많다. 홍대에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하다. 음식, 옷, 액세서리, 화장품, 카페, 공연...다 갖춰져 있으니, 꼭 한 번 놀러 가기를 바란다.



주변 맛집 추천

언니네햄바그

이것은 골목에 숨어 있는 맛집이다. 가게의 공간은 매우 작아서 한 눈에 보일 수 있고 책상도 네 개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공간은 오히려 혼밥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우호적이다. 혼자서 천천히 먹어도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외롭지 않다. 여기서 햄버거스테인크 3가지 맛만 판다. 가격은 6500 원에서 7500 원으로 학생들에게 가격대비가 매우 좋다.



돈통

이 무한리필 고기집은 정말 맛있다. 특히 양념고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두 잡았다. 12900 원으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진짜 가격이 싼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갔을 때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할 줄 몰라서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고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신다. 맛있는 불고기와 된장찌개, 김치, 갯잎 등, 식후 디저트와 아이스크림도 나의 위까지 사로잡았다.



일상생활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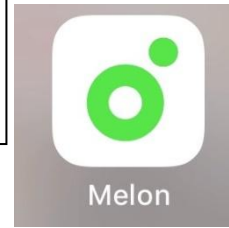
에플리케이션 추천

- ◆ 네이버 지도



시스템 언어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꿀 수 있고, 목적지를 입력한 후 노선이 나타난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빼 놓을 수 없는 실용적인 지도다.

◆ 멜론 뮤직



한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 듣는 앱. 매달 회원비를 내야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가사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 티켓베이



한국은 공연문화가 유명하다. 그러나 우리 외국인들은 공연 정보와 티켓팅 날짜를 자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고 티켓을 싸게 살 수 있다.

◆ 배달요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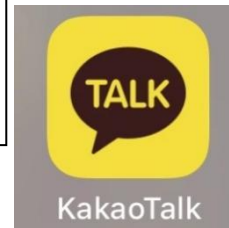
나가서 밥을 먹기를 싫어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한 후 인터넷에서 주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결제 방식은 인터넷 결제나 현금결제 모두 가능하다.

◆ 네이버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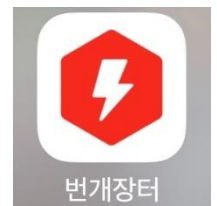
모국어 설명으로 단어의 뜻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설명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예문이 있어서 학습에 더욱 편리하다.

◆ 카카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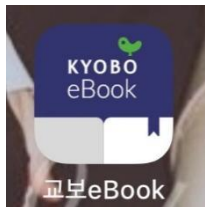
필수적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다.

◆ 번개장터



중고 시장이다. 더 이상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물건을 살 수 있다. 아이돌의 굿즈를 양도하는 사람이 많다.

◆ 교보 ebook



교수님이 추천하는 참고서적은 직접 사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휴대하기도 무겁다. 이 앱으로 전자책을 살 수 있다. 가격도 싸거니와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호칭문제

◆ 씨 중국인들이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을 표시하기 위해 성을 빼고 그냥 직접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중국인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존경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씨"를 붙인다. 그렇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 ◆ **오빠**: “오빠”는 단순히 나이가 나보다 많은 남성에게 대한 호칭이 아니다. 현재 한국에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부를 때 오빠라는 호칭을 선호한다. 그래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함부로 오빠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 친구가 오빠라고 말할 때, 당연하게 오빠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오빠일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 ◆ **선배님**: 선배는 아무한테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니다. 같은 학과가 아니라면 선배라고 부르는 게 타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 **저기요/언니**: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종업원을 부르려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waiter’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언니’, ‘아줌마’, 아니면 ‘저기요’로 대체한다. 제발 ‘종업원’이라고 부르지 마라. 쪽팔려 죽겠다.

교통시설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보통 버스나 KTX 를 타고 서울 시내의 교통수단은 주로 지하철과 버스다. 지하철이 제일 빠르지만 경의중앙선의 경우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열차 시간표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1호선을 탈 때 청량리까지만 가는 열차들도 종종 있어서 타기 전에 종착역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못했다면 중간에 내려서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순환선인 2호선을 이용할 때는 좀 더 복잡하다. 따라서 순환선인지 종착역이 있는 노선인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들은 쉽게 헛갈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보통 일찍 출발해서 버스를 탄다. 주의할 점은 한국 버스에서

내리고 싶을 때는 꼭 벨을 눌러야 한다. 그래야만 버스기사가 차를 세워준다. 또한, 중국에서 곧 도착하는 역을 "다음 역"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 곧 도착하는 역을 "이번 역"이라고 부르고 "다음 역"은 사실 "다다음 역"의 뜻이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한 정거장 미리 내릴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꼭 집중해야 한다.

쓰레기분리수거

중국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 오면 당연히 엄격히 한국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특제 쓰레기봉투를 사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병류, 도시락 등을 분류해야 버릴 수 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면 벌금을 물 수 있다.

I'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빛나는 나를 수놓은 내 영혼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YOU'VE SHOWN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그래서 이제 너를 사랑하나라고 나에게 물으면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는 이렇게 이 컨셉은 여기서 한 번 끝나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그 길을 계속 찾아가는 앞으로의 여정은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앞으로도 같이 손 잡고 같이

I' 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2019.10.29 BTS WORLD TOUR LOVE YOURSELF-SPEAK YOURSELF[THE FINAL] 김남준

후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요즘 정말 학부 수업의 중간시험과 어학당 졸업작품 때문에 연속 1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근데 왠지 하나도 힘들다고 느끼지는 커녕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 작품을 마친 뒤 "내가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전하려는 생각조차 없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도대체 이런 나를 뭐가 변화시켰을까요?

아마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면서 방탄의 노래 가사에 나타난 삶에 대한 깊은 의미가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인생은 딱 한 번이야. 그래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즐겨야 하네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해야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우리는 모두 별처럼 빛나고 있는 소중한 하나하나의 존재다." "날아갈 수 없음 뛰어, 뛰어갈 수 없음 걸어, 걸어갈 수 없음 기어, 기어서라도 gear up. "언제나 용기, 위로와 감동을 줘서 정말 행복하네요. 한국생활을 곧 마무리하지만 1년 동안 정말 여한없이 잘 지냈어요. 그래서 마치

막엔 나 자신에게, 이 세상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할게요!^^